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관계*

홍 초 룡†

권 석 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병리적 자기애(Pathological Narcissism)의 표현형인 자기애적 웅대성(Narcissistic Grandiosity), 자기애적 취약성(Narcissistic Vulnerability)과 자존감,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1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병리적 자기애 척도(PNI),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SES), 자존감 안정성 척도(SSS), 귀인양식 질문지(ASQ)를 실시함으로써 병리적 자기애, 자존감,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자기애적 웅대성은 자존감 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 자존감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자기애적 취약성은 자존감 수준 및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애적 취약성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전반적 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매개분석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자존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전반적 귀인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병리적 자기애, 자기애적 취약성, 자존감, 귀인양식, 부분매개효과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한국임상심리학회 주최 2013년 가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초룡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03080)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E-mail: legna6856@naver.com

병리적 자기애의 개념

병리적 자기애에 대한 관심은 Freud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정의 또한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과거에는 병리적 자기애가 웅대함, 자기감, 특권의식, 자기애적 환상,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병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병리적 자기애의 정의도 광범위해졌다. 최근 들어 병리적 자기애(Pathological Narcissism)는 긍정적인 자기상에 대한 위협이나 실망스러운 결과에 직면해 자기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부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성을 지니며, 외견상 드러나는 자신만만함의 기저에 자기애에 대한 불확실감과 열등감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인 병리로 여겨진다(Kernberg, 1998; Ronningstam, 2005b). 이러한 점에서 병리적 자기애는 자기 및 정서조절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정상적 자기애(Normal Narcissism)와 대비되는 개념이다(Atlas & Them, 2008; Maxwell et al., 2010; Oldham & Morris, 1995).

한편 많은 학자들이 병리적 자기애는 현상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두 하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Akhtar & Thomson, 1982; Cooper & Ronningstam, 1992; Ronningstam, 2005b; Wink, 1991). 두 하위유형을 일컫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다(Akhtar & Thompson, 1982). 외현적 자기애집단은 자기평가가 긍정적이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지 않지만 분노를 자주 느끼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자기평가가 부정적이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분노와 함께 우울,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방글, 오수성, 2009;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a; 백승혜, 현명호, 2008;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이지원, 장은영, 2011; 최정인, 2009; 최혜정, 장문선, 2011; Foster & Trimm, 2008; Orway & Vignoles, 2006; Revik, 2006).

Pincus 등(2009)은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라는 용어는 두 하위유형의 차이가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이 외부로 표현되는지 내부로 표현되는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자기애적 표현형(Narcissistic Phenotype)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를 개발하였다. 자기애적 표현형은 자기애적 웅대성(Narcissistic Grandiosity)과 자기애적 취약성(Narcissistic Vulnerability)으로 구성되며, 한 개인 내에 두 가지 표현형이 공존한다. Pincus 등(2009)에 따르면, 자기애적 웅대성은 자기 및 타인 표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억압하고 실질적인 성취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특권의식적 태도와 과장된 자기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성, 무한한 힘, 우월성, 완벽함, 지나친 칭찬 등 웅대성에 대한 공상을 지니는 것, 대인관계에서의 착취 행위, 공감의 결여, 강렬한 시기, 공격성, 과시행위와 관련된다. 한편 자기애적 취약성은 의식 수준에서의 무기력감과 공허함, 낮은 자존감, 수치심, 이상적인 자기-표상이 불가능하거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감탄을 받지 못할 때 수치심을 느끼며 철수하는 성향과 관련된다(Akhtar, 2003). 자기애적 표현형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애적 웅대성은 자존감 및 분노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우울

및 불안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데 비해(양진원, 권석만, 2016; Pincus et al., 2009), 자기애적 취약성은 열등감, 수치심, 무기력감, 복종적인 대인관계 유형, 우울 및 분노, 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양진원, 권석만, 2016; Dickinson & Pincus, 2003; Pincus et al., 2009).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병리적 자기애가 자기(Self)에 대한 확신의 부족 및 이에 따른 외부의 인정 및 평가에 대한 예민성, 부정적 사건에 직면해 자기조절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핵심인 병리로 보는 견해가 증가함에 따라(Ronningstam, 2005b), 병리적 자기애와 자기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특히, 자기 개념을 확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자존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과 자존감에 대한 해외연구 결과, 자기애적 웅대성은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자기애적 취약성은 자존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Miller et al., 2011; Pincus et al., 2009; Tritt et al., 2010).

한편 최근에는 자존감 수준보다 자존감 안정성이 정신병리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장재원, 신희천, 2011). 특히, 병리적 자기애는 자기 조절의 어려움을 핵심으로 하는 병리인 바,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변동 및 (불)안정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 또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병리적 자기애집단은 하위유형과 무관하게 정상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불안정하고, 하위유형 구분 시 외현적 자기애집단보다 내현적 자기애집단의 자존감이 더욱 불안정하다

는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난다(최정인, 2009; Rhodewalt, Madrian, & Cheney, 1998; Zeigler-Hill, Clark, & Myers, 2010).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은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개념이므로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과 자존감 안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다. 다만 하위유형과 상관없이 병리적 자기애집단은 모두 자존감이 불안정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최정인, 2009)를 고려할 때,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이 모두 자존감 안정성과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병리적 자기애와 귀인양식

자기애에 대한 평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병리적 자기애집단은 특히 타인 참조의 특성이 강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나 성취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고 외부 평가에 예민한 바,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귀인하는 지가 자기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병리적 자기애와 귀인양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b; Farwell & Wohlwend-Lloyd, 1998; Hartouni, 1992; Ladd et al., 1997; Rhodewalt & Morf, 1995, 1998).

해외 연구에서는 병리적 자기애집단이 긍정적 사건을 내부 귀인하고 부정적 사건을 외부 귀인함으로써 자존감을 고양시키고 자기상을 보호하려는 ‘자기-봉사적 귀인편향(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 또는 ‘방어적 귀인편향(Defensive Attributional Bias)’을 보인다고 제안해 왔다. 그러나 실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애집단이 긍정적 사건을 내부 귀인한다는 가설은 비교적 일관적으로 지지되는 데

비해, 부정적 사건을 외부 귀인한다는 가설에 대한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다(Farwell & Wohlwend-Lloyd, 1998; Hartouni, 1992; Rhodewalt & Morf, 1995). 국내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불일치가 병리적 자기에의 하위유형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인식 하에 하위유형을 구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김진순, 2008;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b; 정선, 2007). 그 결과, 김진순(2008)은 외현적 자기에 집단은 성공 피드백에 대해 능력 귀인하지만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오히려 실패 피드백을 능력 귀인함을 확인하였다.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2005b)은 질문지를 사용한 명시적 귀인양식 과제에서는 자기-봉사적 귀인편향을 확인했지만, 실험실 상황에서 실시한 간접적 귀인양식 과제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정선(2007)의 연구에서는 하위유형이 아닌 피드백 유형(성공 또는 실패)에서만 귀인양식의 차이가 나타나, 하위유형 간 귀인양식의 차이를 검증하지 못했다. 이처럼 병리적 자기에 집단의 하위유형을 구분해 살펴본 귀인양식 연구결과는 매우 혼재되어 있다. 특히, 해외연구에서 나타나는 자기-봉사적 귀인편향이 거의 지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에 대해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2005b)은 겸손과 배려를 중시하는 동양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부정적 사건을 외부 귀인하기 어려워 자기-봉사적 귀인편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에서 주로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던 귀인 소재 뿐만 아니라 다른 귀인양식에도 초점을 둔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정인(2009)의 연구에서 자기애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내현적 자기에 집단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일반화해 받아들인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고, 남성 청소년에 국한되긴 하지만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부정적 사건에 대해 안정적으로 귀인한다는 결과(한미향, 2014)가 있음을 고려할 때,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사건에 대해 안정적, 전반적 귀인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기애적 취약성이 무기력감과 공허함, 수치심, 이상적인 자기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철수하는 성향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것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전반적 귀인과 관련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귀인양식과 자존감

귀인양식과 자존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개 우울증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 Tesser(2000)는 문헌 리뷰를 통해 자존감 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자기조절 변인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인 귀인양식(Attributional Style)은 자존감을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변인으로 여겨진다. 특히,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부, 안정적, 전반적 귀인양식은 우울증 환자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 ‘우울유발적 귀인양식(Depressogenic Attributional Style;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이라 불린다. 이 가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며, 내부 귀인뿐만 아니라 안정적, 전반적 귀인도 우울증 집단의 자존감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중요한 시사점으로 여겨진다(박화영, 2010; 최미래, 1997; Brewin & Furnham, 1986; Kernis, Brockner, Frankel, 1989; Pillow, West, & Reich, 1991; Tennen &

Herzberger, 1987; Tennen, Herzberger, & Nelson, 1987).

그러나 병리적 자기에 연구는 대부분 귀인양식 또는 자존감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돼왔던 바, 병리적 자기에와 자존감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우울증 분야의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 병리적 자기에의 자기애적 취약성이 자존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 중 안정적, 전반적 귀인양식이 매개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 소재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병리적 자기애집단이 나타난다고 알려진 부정적 사건에 대한 외부 귀인(자기-봉사적 귀인편향 또는 방어적 귀인편향)이 거의 지지되지 않는 데 비해(김진순, 2008;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b; 정신, 2007), 자기애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부정적 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는 일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양진원, 권석만, 2016;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최정인, 2009). 즉,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외부 귀인을 많이 한다면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야 하지만 실제 연구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귀인 소재가 매개효과를 보일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 안정성 및 전반성은 매개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이유는 우선, 선행연구에서 귀인 소재에만 관심의 초점을 뒀던 주목 받지 못했으나,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일반화하거나 안

정적, 전반적으로 귀인한다는 결과가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b; 최정인, 2009; 한미향, 2014). 또한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성이 크다는 사실(김나예, 2012)을 고려할 때,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부정적 사건을 안정적, 전반적으로 귀인함에 따라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로 인해 우울, 불안, 분노를 더 자주 느끼거나 자존감 수준이 저하되는 등 부적응적 심리적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자기에의 표현형인 자기애적 응대성 및 취약성, 자존감 수준 및 안정성,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해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애적 응대성 및 취약성과 자존감의 관계를 재검증하고, 자기애적 응대성 및 취약성과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관계를 확인하며, 자기애적 취약성이 자존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생활사건이 아닌 부정적 생활사건에 관심을 뒀는데, 이는 병리적 자기에가 긍정적 자기상의 위협에 직면해 자기 조절의 어려움을 보이는 병리인 바,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이 병리적 자기에의 핵심적 특성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존감과 관련해, 자기애적 응대성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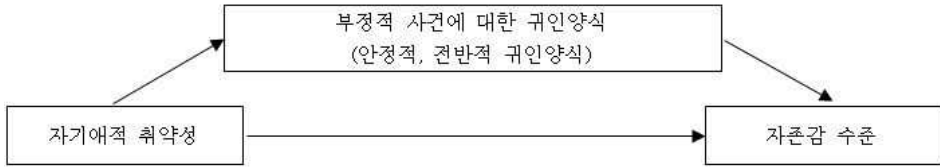


그림 1. 자기에적 취약성과 자존감 수준의 관계에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매개효과 가설

존감 수준과는 정적 상관, 자존감 안정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데 비해, 자기에적 취약성은 자존감 수준 및 안정성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두 번째로 귀인양식과 관련해, 자기에적 웅대성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외부 귀인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자기에적 취약성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전반적 귀인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에적 취약성이 자존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 중 안정적, 전반적 귀인양식이 매개할 것이다. 매개효과 가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의 심리학 교양 과목 수강생 2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질문지 응답에 15~20분가량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였고, 연구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며, 참가자의 모든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리에 보관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2.65세(SD=2.98, 범위 18~32)였고, 절반 이상의 참가자가 만 20~24세에 해당하였다(57.7%). 참가자의 성별은 남성이 140명, 여성이 73명이었다. 결측치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서만 제외하고 다른 분석에는 활용하였다.

측정도구

병리적 자기에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

병리적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해 Pincus 등(2009)이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양진원과 권석만(2016)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병리적 자기에 척도는 '자기에적 웅대성', '자기에적 취약성'의 두 요인으로 구분된다. 또한 각 요인은 각각 세 개의 하위요인, 즉, '착취', '웅대한 환상', '자기고양-자기희생' 요인(이상 '자기에적 웅대성'), '변동하는 자존감', '특권분노', '평가절하' 요인(이상 '자기에적 취약성')으로 구분된다.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5점에 이르는 6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양진원과 권석만(2016)이 보고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2, 자기에적 웅대성과 자기에적 취약성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92, .85다. 4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이다.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이다. 단일 요인의 총 10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점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호택과 이훈진(1995)이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b)이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88-.90이다.

자존감 안정성 척도(Self-esteem Stability Scale, SSS)

장재원과 신희천(2011)이 개발한 척도다. 단일 요인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5점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이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다.

귀인양식 질문지(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귀인 소재(내부-외부), 안정성(안정적-불안정적), 전반성(전반적-구체적)의 세 가지 귀인양식을 확인하기 위해 Peterson(1982)이 제작한 것을 이훈진(1993)이 번안하고 원호택과 이훈진(1997)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는 각 사건에 대해 상상한 후 각 사건이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을 적고, 이 원인의 소재, 안정성, 전반성에 대해 1~7점에 이르는 7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각 항목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사건을 내부, 안정적, 전반적으로 귀인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이 관심사였으므로, 전체 12개 시나리오 중 부정적 사건과 관련된 6개 시나리오만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

통계분석에는 SPSS 23.0과 Hayes(2016)가 개발한 SPSS Macro를 사용하였다.

자기애적 웅대성 및 취약성, 자존감 수준 및 안정성, 부정적 사건의 귀인양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 방식과 Hayes(2013)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함께 사용해 실시하였다.

우선 회귀분석을 사용한 매개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예측변인(자기애적 취약성)이 종속변인(자존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확인하였고, 둘째로 예측변인이 매개변인(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확인하였으며, 셋째로 예측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했을 때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의 예측변인(자기애적 취약성)의 표준화된 베타 값을 비교함으로써 귀인양식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와 더불어,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는 방법은 이론적 분포를 활용하는 방법과 경험적 분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우정, 2015). 이론적 분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Sobel test의 Z 검증인데, Z 검증은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하지만, 실제 매개분석에 사용되는 두 회귀계수의 곱은 편포되어 정상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sobel test를 할 경우 2종 오류가 증가하며 검증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와는 달리, 경험적 분포를 사용하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아 간접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며 검증력이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설정훈, 박수현, 2015;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우정,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우정, 2015)에서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연구 1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213명의 심리 측정지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병리적 자기애, 자존감, 귀인양식 간의 상관관계

병리적 자기애, 자존감, 귀인양식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의 상관분석 결과, 자기애적 웅대성은 자존감 수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r=.15, p<.05$, 자존감 안정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22, p<.01$. 반면, 자기애적 취약성은 자존감 수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r=-.36, p<.01$, 자존감 안정성과도 유의한 부적

표 1. 병리적 자기애, 자존감, 귀인양식의 기술통계량($N=213$)

	평균	(표준편차)
PNI(병리적 자기애)		
자기애적 웅대성	40.73	(11.02)
자기애적 취약성	45.89	(17.27)
PNI 총점	86.62	(25.08)
RSES(자존감 수준)		
	33.24	(6.42)
SSS(자존감 안정성)		
	21.94	(7.30)
ASQ(귀인양식)		
귀인 소재	28.67	(4.87)
귀인 안정성	23.65	(5.41)
귀인 전반성	24.55	(6.35)

주, PNI=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RSES=Rosenberg Self-Esteem Scale; SSS=Self-Esteem Stability Scale; ASQ=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상관을 나타냈다, $r=-.64, p<.01$. 즉, 자기애적 웅대성이 강할수록 자존감이 높지만 불안정하고,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자존감이 낮고 불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병리적 자기애, 자존감,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상관분석 결과($N=213$)

	1	2	3	4	6	7	8
1. 자기애적 웅대성(PNI)	—						
2. 자기애적 취약성(PNI)	.55**	—					
3. 자존감 수준(RSES)	.15*	-.36**	—				
4. 자존감 안정성(SSS)	-.22**	-.64**	.54**	—			
5. 귀인 소재(ASQ)	.00	.03	-.25**	-.20**	—		
6. 귀인 안정성(ASQ)	.11	.20**	-.23**	-.29**	.13	—	
7. 귀인 전반성(ASQ)	.12	.17*	-.20**	-.28**	.33**	.49**	—

주, PNI=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RSES=Rosenberg Self-Esteem Scale; SSS=Self-Esteem Stability Scale; ASQ=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 $p<.05$, ** $p<.01$.

병리적 자기애와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상관분석 결과, 자기애적 웅대성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 소재, 귀인 안정성, 귀인 전반성 모두와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각각 $r=.00, ns, r=.11, ns, r=.12, ns$. 자기애적 취약성은 귀인 안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r=.20, p<.01$, 귀인 전반성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17, p<.05$. 즉, 자기애적 웅대성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과 특별한 관련성을 지니지 않는 반면,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사건을 안정적이고 전반적으로 귀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매개효과

상관분석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과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전반적 귀인양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에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귀인양식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예측변인을 자기애적 취약성, 종속변인을 자존감 수준으로 설정한 1단계의 표준화된 베타값이 $-.35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예측변인을 자기애적 취약성, 종속변인을 귀인 안정성으로 설정한 2단계의 표준화된 베타값은 $.19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측변인을 자기애적 취약성과 귀인 안정성, 종속변인을 자존감 수준으로 설정한 중다회귀분석에서 예측변인인 자기애적 취약성의 표준화된 베타값이 $-.302$, 매개변인인 귀인 안정성의 표준화된 베타값이 $-.169$ 로 통계적으로 유

표 3.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매개효과 검증

	1단계			2단계			3단계		
	종속변인: 자존감 수준			종속변인: 귀인 안정성			종속변인: 자존감 수준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자기애적 취약성	-1.133 (.025)	-.355	-5.40***	.062 (.022)	.195	2.82**	-.112 (.025)	-.302	-4.48***
귀인 안정성							-.202 (.081)	-.169	-2.51*

	1단계			2단계			3단계		
	종속변인: 자존감 수준			종속변인: 귀인 전반성			종속변인: 자존감 수준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자기애적 취약성	-1.133 (.025)	-.355	-5.40***	.061 (.026)	.166	2.38*	-.116 (.025)	-.313	-4.66***
귀인 전반성							-.148 (.068)	-.147	-2.19*

* $p<.05$, ** $p<.01$, *** $p<.001$.

의미하였다. 1단계와 비교할 때 3단계에서 예측변인인 자기애적 취약성의 표준화된 베타값이 감소했으므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귀인양식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 귀인양식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측변인을 자기애적 취약성, 종속변인을 자존감 수준으로 설정한 1단계의 표준화된 베타값이 -.35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예측변인을 자기애적 취약성, 종속변인을 귀인 전반성으로 설정한 2단계의 표준화된 베타값은 .1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측변인을 자기애적 취약성과 귀인 전반성, 종속변인을 자존감 수준으로 설정한 중다회귀분석에서 예측변인인 자기애적 취약성의 표준화된 베타값이 -.313, 매개변인인 귀인 전반성의 표준화된 베타값이 -.14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1단계와 비교할 때 3단계에서 예측변인인 자기애적 취약성의 표준화된 베타값이 감소했으므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 귀인양식도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부정적 사건에 대한 대한 안정적 및 전반적 귀인양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귀인 안정성은 하한값이 -.0347, 상한값이 -.0021이었고, 귀인 전반성은 하한값이 -.0285, 상한값이 -.0003으로 두 귀인양식 모두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및 전반적 귀인양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병리적 자기애, 자존감, 부정적 사건에 귀인양식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우선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의 상관분석 결과,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지만 불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애적 웅대성이 자존감 수준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해외연구 결과와 일치한다(Miller et al., 2011; Pincus et al., 2009; Tritt et al., 2010). 한편 병리적 자기애의 방어적 속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지닌 자기애적 웅대성마저도 자존감 안정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던 바, 병리적 자기애집단이 보고하는 높은 자존감이 실제로는 취약하고 확고하지 못하며 외부 사건에 따라 쉽게 변동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상관분석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존감 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해외연구 결과와 일치한다(Miller et al., 2010; Pincus et al., 2009). 자기애적 취약성도 자존감 안정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던 바, 병리적 자기애집단은 자기애적

표 4.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Boot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귀인 안정성	-.0131	.0078	-.0347	-.0021
귀인 전반성	-.0092	.0068	-.0285	-.0003

L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계수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상한값.

응대성과 취약성의 상대적인 강도에 따라 자존감 수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자존감 안정성은 통제집단에 비해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병리적 자기애집단이 보이는 강한 타인-참조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병리적 자기애집단은 타인의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사건의 영향에 따라 자기개념이나 자기상, 자존감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존감 불안정성이 정신병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주장(장재원, 신희천, 2011)을 고려할 때, 병리적 자기애집단의 자존감 불안정성은 이차적인 정신건강 문제와의 취약성과 관련될 소지도 있겠다.

두 번째로 병리적 자기애와 귀인양식의 상관분석 결과, 자기애적 응대성과 귀인 소재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으나, 자기애적 취약성과 귀인 안정성 및 전반성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는 서양 문화권인 해외연구에서 보고된 자기-봉사적 귀인편향 또는 방어적 귀인편향이 국내 연구에서 거의 지지되지 않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동양 문화권 특유의 겸양적 귀인양식에 대한 가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b)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병리적 자기애집단의 귀인양식에 문화적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특성과 차이를 고려해 다른 변인에 대한 연구적 관심을 뒤야 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된다. 다만 귀인 소재와 관련된 결과가 지지되지 않은 것이 실제로 부정적 사건을 외부 귀인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외부 귀인을 하더라도 타인에게 표현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인 소재가 아닌 다른 두 귀인양식인 귀인

안정성과 귀인 전반성 모두 자기애적 취약성과 정적 상관을 보여 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특히,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 귀인은 자기애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부정적 피드백을 일반화해 받아들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최정인, 2009)와 일치하며, 내현적 자기애집단은 자기개념명료성이 낮다는 결과(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부정적 사건을 안정적, 전반적으로 귀인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이들이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자기조절과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추론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자기-확신이 부족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성과 두려움이 커서(김나예, 2012;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a),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거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신혜인, 2009). 이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와 같이 보다 부정적 인지적 책략을 주로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최정인, 2009)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세 번째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전반적 귀인 경향성이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임을 고려할 때, 자기애적 취약성이 우울과 관련될 가능성이 시사된다(양진원, 권석만, 2016). 즉,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부차적으로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또는 우울하기 때문에 자기애적 취약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도구의 '자기애적 취약성' 척도의 세 가지 하위척도를 살펴보면, 불안정하고 쉽게 변동하는 자존감('변동하는 자존감' 하위척도), 타인의 비판에 대한 예민성과 비판을 받을 때 느끼는 강한 분노('특권분노' 하위척도),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는 성향('평가절하' 하위척도)과 관련된다. 이는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는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나타나기 쉬운 특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또는 우울해지면서 취약한 자기상이 더욱 쉽게 의식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존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전반적 귀인양식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집단의 낮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사건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임을 시사하는 결과다. 자기애적 취약성은 그 개념 상 부정적이고 취약한 자기상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회피적이고 철수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사건에 직면할 때 강한 분노를 경험하는 경향성과 관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기애적 웅대성은 타인을 조종, 착취하거나, 본인을 희생하고, 웅대한 환상에 사로잡히는 등의 다양한 책략을 통해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과 관련되는 바, 자기애적 웅대성이 강한 집단은 부정적 사건

에 직면하더라도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스스로 그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애적 취약성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기애적 웅대성에 비해 회피적, 수동적인 대처방략을 택하는 경향성과 관련되는 바, 부정적 사건에 직면하지 않으려 노력하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뒤에는 그 사건을 보다 안정적, 전반적으로 귀인하면서 정서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전반적 귀인양식의 부분매개효과는 치료적인 개입 지점을 시사하는 바,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한 치료적 개입 시 귀인양식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적 표현형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도구인 병리적 자기애 척도(PNI)를 사용함으로써, 병리적 자기애의 두 하위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자기애적 표현형과 다른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척도의 한계로 인해 주로 현상적 차이에 기초해 임의로 두 개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고 집단 간 차이를 비교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기애적 표현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한 개인 내에 공존하는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이라는 두 요인이 특정 심리적 변인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줬다. 둘째, 병리적 자기애의 두 하위유형인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집단 간의 공통점을 추측할 수 있다.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구분해 수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뒀, 두 집단이 보이는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집단임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소홀했다. 본 연구는 병리적 자기애의 두 표현형이 모두 자존감 불안정성과 정적 상관을 보임을 확인함으로써,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은 건강한 자기애의 부재와 이로 인한 불안정한 자존감, 자기 확신의 부족, 외부 평가에 대한 예민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병리적 자기애는 정상적 자기애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자기애에 대한 불확실함에 기초한 정신병리의 일종임을 지지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전까지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그리고 병리적 자기애와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았지만, 이 세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해본 연구는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병리적 자기애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는 물론, 타 연구 분야의 결과를 고려하여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그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자존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및 전반적 귀인양식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병리적 자기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병리적 자기애의 개념이 보다 광범위해짐에 따라 '부정적 사건에 직면해 자기 조절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정의를 채택하여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긍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도 병리적 자기애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을 모두 아우르는 전체 생활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을 살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겠다. 또한 병리적 자기애집단의 하위유형을 구분해 진행된 국내 선행연구에서 긍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는 바, 자기애적 표현형 개념을 도입할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혼재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해 설명할 수 있다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귀인양식 외의 다른 매개변인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다른 매개변인 또는 조절변인에 대해 탐색하고 확인해본다면 병리적 자기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전반적 귀인양식은 우울한 집단에서 자주 나타나는 결과인 바, 병리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를 면밀히 탐색해보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병리적 자기애는 물론 우울증의 이해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나예 (2012).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두려움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방글, 오수성 (2009). 실패 경험이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 1069-1081.
- 김진순 (2008). 성공-실패 피드백에 따른 외현 및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부적정서, 자존감, 능력 귀인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a). 외현적·내현

- 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255-266.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b).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명시적, 간접적 귀인양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465-474.
- 박화영 (2010). 자존감 및 귀인양식, 우울 간의 관계: 성공·실패 경험과 부정적 귀인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 표현양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 1001-1017.
- 설정훈, 박수현 (2015). 해군 장병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553-578.
- 신혜인 (2009).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정서경험특성과 정서조절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진원, 권석만 (2016).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215-242.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463-477.
- 이지원, 장은영 (2011). 외현·내현적 자기애 그리고 자기고양동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441-458.
- 장재원, 신희천 (2011).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 635-654.
- 정 선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성공·실패 경험이 귀인,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임상 연구에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의 비교 및 통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1113-1131
- 최미래 (1997). 자존감이 귀인양식과 대처방식 그리고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 성격 및 개인차 연구, 6(1), 115-128..
- 최정인 (2009). 평가적 피드백에 따른 성향자의 자존감 변화 및 정서조절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정, 장문선 (2011).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방어기제 특징. *상담학연구*, 11(2), 539-554.
- 한미향 (2014). 고등학생의 취약성 자기애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귀인양식, 분노의 매개효과 및 성별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6), 309-338.
- Akhtar, S. (2003). *New clinical realms*. London: Jason Aronson Inc.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tlas, G. D., & Them, M. A. (2008). Narcissism and sensitivity to criticis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urrent Psychology*, 27(1), 62-7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rewin, Chris R., & Furnham, Adrian. (1986). Attributional versus preattributional variables in self-esteem and depression: A comparison and test of learned helplessness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1013-1020.
- Cooper, A. M., & Ronningstam, E. (199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A. Tasman, M. B. Riba (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11(pp. 80-9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 Farwell, L., & Wohlwend-Lloyd, R. (1998). Narcissistic processes: Optimistic expectations, favorable self evaluations, and self enhancing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6(1), 65-83.
- Foster, J. D., & Trimm, R. F. (2008). On being eager and uninhibited: Narcissism and approach - avoidance motiv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34(7), 1004-1017.
- Hartouni, Z. S. (1992). Effect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organization on causal attribution. *Psychological Reports*, 71, 1339-1346.
- Hayes, A. F. (2013).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Kernberg, O. F. (1998).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oretical background and diagnostic classification. in Ronningstam, E. F.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pp. 29-5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Kernis, M. H., Brockner, J., Frankel, B. S. (1989). Self-esteem and reactions to failure: *The mediating role of overgener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707-714.
- Ladd, E. R., Caywelsh, M., Vitulli, W. F., Labbe, E. E. & Law, J. G. (1997). Narcissism and causal attribution. *Psychological Reports*, 80, 171-178.
- Maxwell K., Donnellan, M. B., Hopwood, C. J., & Ackerman, R. A. (2010). Two faces of Narcissus? An empirical comparis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577-582.
- Miller, J. D., Gaughan, E. T., Maples, J., & Price, J. (2011). A Comparison of agreeableness scores from the big five inventory and the NEO PI-R: Consequences for the study of narcissism and psychopathy. *Assessment*, 18(3), 335-339.
- Oldham, J., & Morris, L. B. (1995). *The new personality self-portrait: Why you think, work, love and act the way you do*. New York: Bantam Books.
- Otway, L. J., & Vignoles, V. L. (2006). Narcissism and childhood recollections: A quantitative test of psychoanalytic predi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32(1), 104-116.
- Pillow, D. R., West, S. G., & Reich, J. W. (1991). Attributional style in relation to self-esteem and depression: Mediatonal and

- interactive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5(1), 57-69.
- Pincus, A. L., Ansell, E. B., Pi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C.,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365-379.
- Revik, J. O. (2006). Overt and covert narcissism: Turning points and mutative elements in two psychotherapies. *British Journal of Psychotherapy*, 17(4), 435-447.
- Rhodewalt, F., Madrian, J. C., & Cheney, S. (1998). Narcissism, self-knowledge organization, and emotional reactivity: The effect of daily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a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 75-87.
-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1), 1-23.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 Ronningstam, E. F. (2005b).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 review. In M. Maj, H. S. Akiskal, J. E. Mezzich, & A. Okasha (Eds.), *Evidence and experience in psychiatry: Volume & personality disorders*(pp. 277-327). New York: Wiley.
- Tennen, H., & Herzberger, S. (1987).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72-80.
- Tennen, H., Herzberger, S., & Nelson, H. F. (1987).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The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5(4), 631-660.
- Tesser, A. (2000). On the confluence of self-esteem maintenance mechanis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4), 290-299.
- Tritt, S. M., Ryder, A. G., Ring, A. J., & Pincus, A. L.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the depressive tempera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2(3), 280-284.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Zeigler-Hill V., Clark, E. M. & Myers, C. B. (2010). Narcissism and self-esteem reactivity: The role of negative achievement ev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2), 285-292.
- 원고접수일 : 2016. 08. 31.
게재결정일 : 2016. 10. 19.

The Relationship among Pathological Narcissism, Self-Esteem, and Attributional Styles on Negative Events

Cho-Rong Hong

Seok-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hip among narcissistic phenotypes of Pathological Narcissism(PN), Self-Esteem(SE), and attributional styles on negative events. A total 213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by responding to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PNI),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 Self-esteem Stability Scale(SSS), and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ASQ). The study results were follows. First, narcissistic grandios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 level and negatively with SE stability, while narcissistic vulnerabil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th. Second, only narcissistic vulner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able and general attributional styles on negative events. Last, stable and general attributional styles on negative events par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vulnerability and SE level. This study contributes to further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phenotypes of PN, SE, and attributional styles on negative events. Som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Pathological Narcissism, Narcissistic Vulnerability, Self-Esteem, Attributional Style, Partial Mediated Effect